

온두라스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8. 12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0
V. 종합의견	12

온두라스

I. 일반개황

면적	113천 Km ²	GDP	123억 달러(2007년)
인구	7.11백만 명(2007년)	1인당 GDP	1,733달러(2007년)
정치체제	민주주의	통화단위	Lempira(La)
대외정책	실리추구 경제외교	환율(달러당)	18.90(2007년)

- 온두라스는 중미 카리브연안에 위치한 국가로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
- 온두라스는 전통적 농업국가이나, 최근 수년간 미국의 무역특혜조치에 힘입어 보세가공수출업(Maquiladora)을 장려하면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그러나 국내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바나나, 커피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II. 경제 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e
경제성장률	5.0	6.1	6.3	6.3	4.0
재정수지 / GDP	-2.9	-1.4	-1.7	-2.3	-3.9
소비자물가상승률	8.1	8.8	5.6	6.9	11.7

자료 : IFS, EIU

□ 안정적인 경제성장 유지

- 온두라스 경제는 2004년 HIPC의 완결시점 도달 이후 외국인투자 증가, 마킬라 산업 및 관광업 호조, 민간소비 증가 등에 힘입어 5.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고, 2005년에도 커피와 사탕수수의 작황 호전 등으로 연평균 6%대의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2006-07년에는 미-중미 자유무역협정(DR-CAFTA)의 효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해외근로자의 본국 송금 증가로 내수 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6.3%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2008년에는 공공지출 확대, SOC 확충사업 개시 등 다양한 개발수요로 건설업이 호황을 보이면서 상반기 양호한 성장세가 이어졌으나, 하반기 들어 미국 발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수출 및 FDI, 해외근로자 송금 등이 대폭 축소되면서 경제성장률이 5년 만에 가장 낮은 4.0%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 재정수지 적자 폭 확대

- 2005년에는 세원확대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HIPC 잠정채무구제에 따른 채무상환부담 감소 등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폭이 1%대로 낮아졌

으며, 2006년에도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 증대와 정부의 긴축정책 효과로 1.7%의 적자폭을 기록하였음.

- 그러나 2007년 DR-CAFTA 발효 이후 관세수입이 감소하고, 공무원 임금 상승과 빈곤층에 대한 소득재분배 및 에너지 자원 개발을 위한 공공지출 확대에 재정수지 적자폭이 2.3%로 소폭 상승하였고, 2008년에도 세계개혁 추진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세원 감소, 재정지출 대폭 확대(29% 증가) 등으로 적자폭이 3.9%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2008년 물가상승률 두자리수 기록

- 소비자물가는 2004년부터 고유가, 부가가치세 인상 등에 따라 상승세로 반전하였으며, 2005년에는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상승압력이 증가하여 8.8%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음.
- 2006년에는 금리 인상 등 정부의 적극적인 긴축통화정책에 힘입어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5.6%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으나 2007년 들어 고유가 및 옥수수 등 식품류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물가상승률이 7%대로 소폭 상승하였음. 2008년에도 9월까지 지속된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8년 만에 처음으로 두자리수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 취약한 수출 구조 및 해외근로자 송금에 의존

- 주요 수출품목이 커피, 새우 등을 비롯한 농수산물, 육류 등 1차 산품으로 국제가격변동과 기후조건 등 외부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취약한 수출 구조를 가지고 있음. 국내 제조업 기반 부족으로 산업용 중간재, 자본재 및 소비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여 수입액이 수출액의 두 배에 달하며 이 차이를 국제기구 등의 원조와 해외근로자의 송금액으로 충당하고 있음.

□ CAFTA 발효 이후 투자환경 개선중

- 온두라스는 전력, 도로, 통신 등 각종 인프라 설비가 미비하고, 정치 사회적으로도 불안정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많았음.
- 그러나, 2006년 DR-CAFTA가 발효됨에 따라 향후 미국시장을 진출을 겨냥한 외국인투자가 대폭 확대되고 있고 이를 위해 정부의 인프라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전반적인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 미국-중미 자유무역협정(DR-CAFTA) : 2004년에 미국과 중미 6개국(온두라스, 파나마, 니카라과,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서 2007년 10월 코스타리카 의회가 마지막으로 비준하였고, 온두라스 정부는 2005년 3월 이미 의회 비준을 마쳐 2006년부터 CAFTA의 효과를 본격적으로 누리고 있음. 세계은행은 DR-CAFTA 발효 직후 5년 동안 중미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연간 0.6%로 높아지고 2010년까지 약 50만명의 빈곤인구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 IMF의 빈곤감축성장프로그램(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 : PRGF)의 충실한 이행

- 온두라스 정부는 2004년 재개되었던 PRGF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행한 결과 2005년 3월 HIPC 완결시점(completion point)에 도달하여 총 9억달러에 달하는 채무를 탕감받았음.
- IMF/IBRD는 온두라스의 완결시점 도달 조건으로 i)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 ii) 최소 1년 이상 빈곤감축전략(PRSP)의 성실한 수행 등과 더불어 다음의 6가지를 주요 이행사항을 내걸었으며, 대부분 충실히 이행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 6가지 이행사항은 ① 포괄적인 부패방지 프로그램 제시, ② 의료, 연금 제도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 개혁, ③ 빈곤층을 위한 보건서비스 개선, ④ 지방교육 확대 및 교육환경 개선, ⑤ 산업 및 지방자치의 효율성 확대, ⑥ Basel 협약 준수 및 금융개혁 추진 등임

- 온두라스 정부는 2007년 2월 PRGF가 종료된 이후 이를 대체할 정책지원 프로그램(policy support instrument) 추진을 IMF와 협의하였으며, 전력공사 구조조정 시행, 재정 및 경상수지 개선 노력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2008년 4월 대기성 차관 63백만 달러를 지원받기로 하였음.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e
경 상 수 지	-638	-304	-510	-1,225	-1,969
경 상 수 지 / G D P	-7.7	-3.1	-4.7	-10.0	-13.7
상 품 수 지	-1,293	-1,497	-2,122	-2,962	-3,821
수 출	4,534	5,048	5,195	5,594	6,226
수 입	5,827	6,545	7,371	8,556	10,046
외 환 보 유 액	1,957	2,315	2,616	2,514	2,527
총 외 채 잔 액	5,779	4,933	4,121	3,273	3,659
총 외 채 잔 액 / G D P	84.9	51.0	38.3	26.7	26.6
D. S. R.	9.9	10.0	6.8	6.4	5.7

자료 : IFS, EIU

□ 상품수지 적자는 지속되나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

- 2001년 이후 계속 감소하던 수출은 2003년부터 주요 농산물의 작황호전과 마끼라산업 호황으로 증가세로 반전하였으며, 2006년 발효된 DR-CAFTA의 영향으로 수출규모는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상품수지는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과 마끼라산업을 위한 자본재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2006년에는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커피, 바나나, 새우 등 3대 품목의 대외수요가 증가하여 수출이 5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07년에도 CAFTA 체결, 커피 및 섬유제품의 수출 호조세 지속 등으로 56억 달러를 상회하였음.

- 2008년에는 미국과 중미 국가에 대한 수출이 늘면서 사상 처음으로 6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수입 증가율이 전년 대비 32%에 달하면서 상품수지 적자 규모는 38억 달러로 확대되었음.

□ 경상수지 적자 규모 과다한 수준

- 온두라스 경상수지 적자는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와 과중한 외채이자 부담 등으로 다소 과다한 수준임. 2004년에는 과중한 외채부담, 관광업 부진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폭이 GDP의 7.7%에 달하였으며, 2005년에는 수출 회복, 외채이자 부담 감소 등으로 적자폭이 3% 수준까지 감소하였음.

* 해외근로자 송금은 온두라스의 가장 중요한 외화수입원으로서 2006년에는 GDP의 18%인 20억 달러가 유입되어 동국의 경상수지 적자 보전과 외환보유액 증가에 기여

- 그러나 2007년에는 관광업 회복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 적자 규모의 대폭 확대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폭이 다시 9%대로 확대되었으며, 2008년에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경상이전수지 등의 적자 규모가 전년대비 모두 증가하면서 적자폭이 두자리수를 기록하게 됨.

□ DR-CAFTA 영향으로 FDI는 증가

- 온두라스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섬유, 의류 기업의 투자확대, 통신업과 제조업(시멘트 공장)에 대한 현지공장 설립 등의 이유로 2002년 2.7억 달러 수준에서 2006년 6.5억달러로 2.5배 이상 증가하였음. 총 투자액의 70% 이상이 미국 기업에 의해 이루어져 있으며, 중미와 EU 기업도 각각 17%, 12%를 차지하고 있음.
- 2007년에는 자원개발 부문에는 FDI 유입이 소폭 줄었으나, 서비스업과 제조업 부문의 투자가 늘면서 사상 최대규모인 8.2억 달러의 FDI를 기록하였음.

□ 외채상환능력 개선중

- 2007년말 기준 총외채는 약 32억 달러로 추정되며 GDP 대비 총외채 비

중은 HIPC 채무구제에 힘입어 2004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음.
(2007년 총외채/GDP 비중 26%)

□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액 감소세 반전

- 외환보유액은 해외원조, HIPC 잠정채무구제에 의한 이자비용 경감, 수출과 해외근로자 송금 증가, 외국인투자 유입액 확대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에는 상품수입의 4.8개월분인 2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07년 이후 수입증가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확대로 외환보유액/상품수입 비중은 3.4개월분으로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D.S.R는 매우 양호

- 2003년 15%까지 달했던 D.S.R은 HIPC 채무탕감 이후 대폭 낮아져 2008년에는 5% 수준까지 하락하였음.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 및 국제관계

□ 자유당(PL)과 국민당(PN)의 양당제 정치체제 유지

- 군사쿠데타 발발과 군사독재로 정치, 사회적 불안이 계속되다가 1971년 최초로 대통령 직선제에 의해 민간 정부가 수립되었음.
- 빈번한 쿠데타로 인해 수차례 헌정 중단사태가 발생하여 정당의 발달이 지연되었으나, 현재는 국민당(PN)과 자유당(PL)의 양당체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음.

□ 2005년 11월 대선에서 자유당(PL)의 Manuel Zelaya 대통령 당선

- 지난 2005년 11월 대선에서 사회투자기금 이사장을 역임한 자유당(PL)의 Manuel Zelaya가 집권 여당인 국민당(PN)의 Lobo Sosa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어 2006년 1월 취임하였음.

* 셀라야 대통령은 동부 올란초 지역 출신의 사업가로 목재산업협회장, 온두라스 기업협의회장 등을 지낸 친시장주의자이며, 비행청소년 개화프로그램 도입 등을 주요 정책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치안강화 높은 관심 표명

- 그러나 총선에서 총 128석중 62석을 차지, 과반수 획득에는 실패한 이후 국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최근 각종 부패 스캔들,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지지도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임. (2010년 대선에서 PN의 우세 예상)

□ 주변국과의 분쟁 가능성은 크지 않음

- 미국의 지원하에 경제재건이 이루어져 왔으며 대외적으로 친미, 친서방 및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관계에 역점을 두고 있음.

- 국경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보인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등과는 정상회담, DR-CAFTA 체결 등을 통해 관계가 상당부분 회복된 상황이어서, 국경분쟁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낮음.

2. 사회 및 소요사태

□ 실업, 빈곤, 범죄 등 사회불안 요소 상존

- 인구의 40% 이상이 1일 1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등 인구의 50% 이상이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고, 국민의 상위 20%가 전체 소득의 60%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20%는 3.4% 소득을 점하고 있는 데 그치는 등 소득 불균형이 심함. 또한 최근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이 높아지면서,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주요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OECD, 2007년 6월 온두라스 국별신용도등급 상향 조정

- OECD는 물가, 재정 등 거시경제 안정화, DR-CAFTA 발효에 따른 대외거래 호조, 외채지표 개선, 금융부문 개혁 추진 등을 이유로 온두라스 국가 신용등급을 7등급에서 6등급으로 1단계 상향조정하였음.

o OECD : 7등급(06. 6) → 6등급(07. 6) → 6등급(08. 6)

o Moody's : B2(03. 7)

2. 주요 ECA의 인수태도

- 이번 온두라스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은 1999년에 7등급으로 분류된 이후 8년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HIPC 채무탕감, 각종 개혁정책 추진 등의 대내외 요인이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분석됨.

o US EXIM : 제한적 인수 가능

o 영국 ECGD : 개별심사

o 독일 Hermes : 단기 인수가능

3. 외채상환태도

□ 외채위기 경험국

- 1980년대 중반 시작된 외채위기로 1989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기도 하였으나, 1991~92년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과 파리클럽 및 주채권국인 미국의 지원으로 채무지급 중단 사태에서는 벗어남.

- 1997년 47억 달러 수준이던 총외채는 계속 증가하여 2004년에는 58억 달러까지 증가하였으나, 2005년 HIPC 완결시점에 도달하는 한편, 파리클럽 채무에 대한 추가 삭감으로 2007년 외채규모는 32억 달러로 감소하였음.

□ HIPC 완결시점(Completion Point) 도달

- 2000년에는 Enhanced HIPC 수혜 대상국가로 선정되었으나, 재정적자 확대, 구조조정 지연 등으로 IMF의 PRGF 프로그램 및 채무구제가 잠정 중단된 바 있음.
- 그러나 2004년 2월 온두라스에 대한 IMF의 PRGF 프로그램이 재개되었고, 2005년 4월에 완결시점에 도달하여 향후 20년간 9억 달러(NPV 기준으로 5억 5,600만 달러)를 탕감 받게 될 예정임.
- 수출개선과 함께 채무구제가 확정되어 D.S.R.이 5%대로 낮아졌으며, 외채의 대부분이 양허성차관(63.6%)이어서 단기외채 비중도 8.2%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일방적인 무역 출초국

- 2007년말 현재 대 온두라스 수출규모는 132백만 달러인데 반해, 수입은 59백만 달러로 일방적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 수출은 자동차, 타이어, 직물, 전자제품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은 커피, 새우, 광석 등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임.
- 우리 기업의 온두라스에 대한 직접투자는 1990년대 중반까지 활발하였으나,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온두라스에 진출해 있는 우리 업체의 대부분은 의류 및 섬유 업종에 집중되어 있으며, 근로자 500명 이상의 중형업체 20여 곳을 포함, 약 70여개 업체가 진출해 있음.

V. 종합 의견

- 2004년 HIPC 채무 탕감 수혜와 2006년 미국-중미 자유무역협정 (DR-CAFTA) 발효로 경제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2008년 중 국제 원자재 및 식료품 가격 상승, 미국 발 금융위기에 따른 해외송금 감소 등으로 당분간 경기침체가 전망됨.
- 정치적으로는 양당제가 정착되어 비교적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유지되고 있으나, 최근 Zelaya 대통령의 지지도는 인플레 우려, 경기침체 등으로 크게 하락하고 있는 실정임.
- 미국에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상 향후 경제전망은 낙관적이지 못하나, 2007년 OECD가 온두라스의 국가신용등급을 8년 만에 상향조정하고 금년 4월 IMF의 대기성차관 수혜가 확정되는 등 대외신인도가 크게 향상되고 있고, 외채잔액, D.S.R. 등 외채관련 지표가 개선되고 있음.